

2013. 4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2013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4.29.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박희원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14	-	2	21	-	2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4	16	1	2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5 건	5건	3월
교양	'TV특강' 주제 트렌드 맞게 구성해 방영되길	'TV특강' 주제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구성	3월
교양	'토크앤 조이' 출연진의 다양화 필요	'토크앤 조이' 출연진 다양화 발굴하여 제작	3월
보도	'시사광장' 구성 취재화면 활용	'시사광장' 방영에 취재화면 활용	3월
교양	'아침이 좋다' 출연진 인터뷰시 조명에 유의	'아침이 좋다' 출연진 인터뷰시 조명에 유의	3월
보도	강력사건 보도시 모방범죄 유의	강력사건 보도시 모방범죄 안되도록 기사와 편집 유의함	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p>4월 21일 시사광장의 '4.1. 부동산대책 그 이후'를 시청했다. 정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을 매입하고 매도할 때 실수요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별로 패널을 통해 제시해주었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출연진 중 한 명인 건설업체 관계자는 토론이라기 보다는 주어진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진행을 해서 답답한 느낌을 가졌다. 매 회 때마다 마음에 드는 패널섭외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청자들은 패널을 통해 주어진 논제에 대해 몰입도와 관심도 정도를 달리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패널섭외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판단한다(한찬희).</p>	<p>패널의 전문성과 방송 숙련도 등을 더욱 고려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산뜻한 봄 이야기를 구성하여 부담 없이 보기 좋았다. 새롭게 선보인 코너 중에 <열린 마이크 할 말 있습니다>는 시청자들의 민원사항을 담고 있었다. 4월 19일 방송에서는 공주시 정안면 농촌지역을 찾아 노인들의 여가시간 프로그램, 체육시설 확대, 마을버스 배차 등의 민원사항을 소개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에서는 민원사항을 진행자의 내레이션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민원사항은 민원인의 육성을 직접 담아 전달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다(한찬희).</p>	<p><열린 마이크 할 말 있습니다>는 지역민이 겪는 불편함을 지역민이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월-목요일까지 지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금요일에는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의 입장을 듣는 형식이다.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여기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4월 12일 '시사플러스'의 <지역 없는 대전시의 문화산업진흥?>을 보고 대전영상위원회 한 사람으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현실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진다. 이효정 원장 취임 이후 대전에서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 등에 대전시의 세금으로 제작비를 지원했고 원장 본인도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영상문화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사플러스에서 이에 대해 대전의 영상</p>	<p>문화산업진흥원의 여러 문제점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문화산업진흥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가가도록 문제를 제기했다. 제작진 나름대로 입체적인 분석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p>	<p>편성 반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산업 발전을 기대하면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첫째, 진흥원의 문제점을 열거한 제보자의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관계자가 볼 때 누구인지 확인이 된다. 제보자 자신도 문제 있는 사람이라서 프로그램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을 볼 때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심층적, 다각적, 다면적 접근이 필요한 소재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김형주).</p>		
교양	<p>4월 19일 '시사플러스'가 200회 특집으로 지난 5년간을 결산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0회 특집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보기에 너무 약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미흡한 느낌이 들었다. 4월 26일에는 싸이 공연 방송으로 '시사플러스'가 폐지되었다.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이에 대해 예고 방송이나 예고 자막 처리가 필요하다. 싸이의 공연을 방송하는 시간대에 홀림자막으로 프로그램 폐지 안내 자막을 내보냈어야 한다(김명수).</p>	<p>'시사플러스'는 대전MBC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200회라는 적지 않은 방송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의 올바른 의제 설정을 위해 정진하였다. 200회에 걸맞는 방송을 준비 못한 점 인정한다. 굳이 변명하면 제작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결과이다. 앞으로 300회, 400회를 기대해 줬으면 좋겠다.</p>	편성 의견참고
보도	<p>'시사광장'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었다. 이웃 간 잘 지내자는 투의 멘트로 결말을 짓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사토론의 대표격 프로그램이므로 상식선 이상의 전문가적 의견을 담아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김명수)</p>	<p>이슈나 의제 등에 대한 대안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고민하겠다.</p>	보도 의견참고
보도	<p>4월 14일 '시사광장'에서 <창조경제 실현, 어디에서 시작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창조경제의 의미와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였는데 궁금한 것은 대전시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창조경제 안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었다.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안을 소개하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면 국가적 패러다임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명수).</p>	<p>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제시하여 진행방향의 개선점을 모색하겠다.</p>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토크앤 조이’(4월 6일)에 금성백조 정성욱 회장이 출연하였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라 화면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웠다. 나눔의 기부문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였다. 13일에 방송된 꽃 농장주 안승환씨는 잘 모르는 분이였다. 프로그램 상단에 출연자 이름을 명기를 해주거나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출연자에 대한 소개를 넣어주면 좋겠다(김명수).</p>	<p>출연자의 프로필은 방송 시작과 중간에 2번 정도 흐름자막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출연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좌상단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지도가 적은 출연자는 흐름자막을 보다 많이 노출하도록 하겠다.</p>	<p>편성수용</p>
교양	<p>‘시사플러스’ 4월 12일편에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를 방송하였다. 성추행 당한 학생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음성변조 인터뷰를 담았다. 내용 중 “(교수는) 피해학생에게 위협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표현이 있었고 학교측은 (은폐하기 위해)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표현도 있었다. 이는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반론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고 편집했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인 학생들의 주장과 더불어 가해자의 주장을 같이 담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단정적 어휘를 편집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가해자인 교수가 문제발생 이후 교내에서도 크게 불거진 사안을 피해학생에게 위협적으로 처리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실제로 가해자인 교수가 그런 언사를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교수 입장에서의 반론도 담아주었어야 프로그램의 객관성이 유지된다. 이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보길 바란다(장동환).</p>	<p>시사프로그램에서 취재원에게 취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 꼼꼼하게 대본을 본다고 봤는데도,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가해자인 교수한테는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취재하였다. 시사프로그램에서 객관성은 가장 큰 덕목이다. 보다 철저한 스크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시사플러스’ 4월 12일편에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에서 전반부에 성추행 교수가 근무하는 대학교 이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영어 이니셜로 표현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에서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송인덕).</p>	<p>앞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주의하겠다.</p>	<p>편성수용</p>
교양	<p>‘시사플러스’ 4월 12일편에 <지역 없는 대전시의 문화산업진흥?>을 보면 PD수첩의 진행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제작자인 PD의 출연은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제작방식이 보기 좋았다. 아쉬운 점은 민감</p>	<p>좋은 지적이다. 탐사보도에서 PD가 직접 출연하는 부분은 취재내용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신뢰도를 주기 위함이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PD가 주목도 있는, 중요한</p>	<p>편성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한 사안은 영상처리 한다는 것이다. 정작 스튜디오에 출연한 PD는 두루뭉실한 답변을 내고 있어 프로그램 전체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민감한 부분은 오히려 PD가 직접 밝혀 당사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객관적 증거를 찾아 진실을 찾고자 하는 PD저널리즘의 탐사보도를 보여주어야 한다(송인덕).	진실을 직접 이야기 하도록 제작진과 상의하겠다.	
기타	인터넷 다시보기 화면 사이즈가 4:3 사이즈이다. 요즘 TV 화면이 HD인지라 16:9로 시청을 한다. 인터넷 다시보기도 16:9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송인덕).	현재 다시보기 서비스는 16:9 비율로 제공되고 있다. 대전MBC 미디어 플레이어 포맷이 4:3으로 되어 있어 보여지는 부분 위, 아래로 검은 색이 둘러져 있다.	경영(전산) 의견참고
기타	인터넷 다시보기에서 확대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니터 사이즈로 확대되면서 화질은 많이 떨어진다. 확대화면을 현행 모니터 사이즈에서 모니터 중간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김명수).	현재 제공 되어지는 미디어 플레이어 포맷의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야 한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경영(전산)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가 어언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에서 5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제작진들의 분투에 칭찬을 해 주고 싶다. 200회를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이 그다지 부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200회 정도가 되었으면 프로그램 내에서도 좀 더 '시사플러스'를 부각시킬 수 있게 기획된 내용물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본다(김경숙).	맞는 지적이다. 200회에 어울리는 기획취재물을 시청자에게 선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 정진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4월 5일 '시사플러스'의 <의장님들의 특별한 해외출장>에서는 시군 의장의 관광성 해외 여행을 꼬집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군 의회 직원이 의장의 해외연수를 제보했다고 프로그램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름과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면 누가 제보했을 것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고 본다. 잘못하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보자를 익명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김경숙).	지자체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뉴스에서도 많이 지적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대개는 가명이나 이니셜로 표기하는데 이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4월 5일 '시사플러스'의 <금강의 경고, 역행 침식>에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빚어진 금강지역의 농경지 침식과 역행침식을 고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의 인터뷰는 아주 짧게 나온다. 사회적 쟁점을 다룰 시 찬반 논리를 가진 이해당사자들 의견은 가능한 균등하게 배분해 주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행정당국의 논리와 반박을 너무 적게 취급하고 있다(김경숙).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제보자 한사람만 인터뷰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제보자를 인터뷰 했을 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보다 반론을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8시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를 신임 아나운서로 바꾸었다. 이는 도박이다. 신임 아나운서는 더 경험과 훈련을 쌓게 하여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김영광).	방송 투입이후에도 충분한 리허설 등을 거쳐 앵커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막걸리, 와인 등 술과 음식을 먹는 코너가 있었다. 아침 프로그램에 술 먹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김영광).	막걸리, 와인에 대한 아이템은 자주 다루지도 않지만 올바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해하여 줬으면 좋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그 집에 살고 싶다> 코너가 신설되어 전원주택, 외국풍의 집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가끔은 일반 소시민이 살기에 벽찬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럭셔리한 주택을 소개하기도 한다. 과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제작에 유의하길 바란다(김영광).	<그 집에 살고 싶다>는 그동안 먹거리 아이템을 지양하고 올바른 주거문화를 위한 제언이다. 대개는 국민주택 규모거나 비싸지 않은 주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시청자가 신청을 하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4월 3일 TV특강 「쉬운 명상 놀라운 변화」편을 시청하였다.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육체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명상은 쉬듯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TV특강에서는 시청자를 위하여 앉아서 심각하게 참선만 하는 명상이 아니라 유쾌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명상의 시간을 준비하였다. 유쾌한 유하진 강사님과 함께한 한 시간 동안 시청자는 명상과 관련된 지식의 전달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명상의 방법을 정리해 주는 기회가 되었다. 간단한 신체 움직임과 상상의 시간을 통해 본 방송은 기존의 시청각만을 자극하는 방송이 아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	TV특강은 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다. 제작시 작가와 제작PD와의 논의를 통해 제작방식과 구성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운 시간이었다. 본 방송의 이러한 참신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다만, TV특강의 진행자의 역할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정도에 그쳐 본 방송에서 진행자의 필요성에 의문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할 것이다(오덕성).</p>		
교양	<p>4월 8일 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 「희망을 짜다 유구직물마을」 편을 시청하였다. 본 방송은 한때 직물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에 방문해 과거의 방식대로 직물을 짜고 있는 공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곳 주민들을 인터뷰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유구직물마을의 번성했던 한때와 많이 쇠퇴한 현재의 모습을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어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직물 공장들의 많이 쇠퇴한 현황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공장주의 새로운 판로 개척 노력, 정부 및 지자체에서의 섬유연구소, 마케팅 센터 제공 등의 협력을 통한 유구시의 활성화 방안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의 재미와 흥미 위주의 방송에 싫증을 느끼던 시청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신선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아쉬운 점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시사 프로그램과 같이 어렵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유구직물을 소개하는 편이라면 직물로 만든 다양한 형형색색의 작품들을 유려한 영상으로 처리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오덕성).</p>	<p>칭찬과 격려에 감사하다. 오랜 시간 아날로그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유구 사람들의 모든 것이었던 직물의 역사와 현실을 담담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지적하신 대로 시사적인 느낌은 아쉬운 감이 있다. 살아 숨쉬는 공간을 휴머니즘 가득한 시선으로 시청자가 힐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편성 수용
보도	<p>4월 14일 시사광장 「창조경제실현, 어디에서 시작하나?」 편이 방송되었다. 이번 주 시사 광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핵심과제인 창조경제란 무엇인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향과 지역의 과제에 대하여 교수, 테크노파크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에서 창조경제 슬로건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은 창조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구체</p>	<p>시청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고민하겠다.</p>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적인 내용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 때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 토론자들은 창조경제의 기초적인 개념과 깊이 있는 정보를 사례를 통해 전달해주었고, 사회자는 패널들의 의견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주어서 시청자가 다소 생소한 주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만, 창조경제에 대응하는 대전의 전략에 대한 토론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 시청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보완된다면 더 알찬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오덕성).</p>		